

초등학생 독서치료 프로그램 관련 학위논문의 동향 분석: 2003-2010

A Trend Analysis on the Bibliotherapy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Korea: 2003-2010

정 수 연(Soo-Youn Jung)*

이 명 규(Myoung-Gyu Lee)**

초 록

이 연구는 초등학생 대상의 독서치료 프로그램과 관련한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그 현황과 독서치료 과정, 내담자 문제유형과 문제내용, 독서치료에 활용한 도서 등의 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독서치료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임상적·치료적 독서치료의 과정은 도입, 전개, 평가 등의 모든 단계의 적용이 더욱 효과적이다. 내담자의 문제유형과 내용은 심리·사회적 문제나 정신장애 문제로서 사회성 결여,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 결여, 우울, 불안, 학습태도 산만 등이다. 임상적·치료적 독서치료를 위한 도서목록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임상·치료적 독서치료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이며 앞으로 임상·치료적 독서치료 연구자에게 연구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 the process of bibliotherapy, the typical problems of participant, and the trend on books of bibliotherapy, using the theses about clinical bibliotherapy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2003 to 2010 in Korea. Bibliotherapy has been studied at various academic fields. And the bibliotherapy process for all steps of readiness, comprehension-building, and evaluation is more effective in clinical bibliotherapy. Typical problems and contents of participant deal with a lack of sociality, a lack of self-conception and self-esteem, depression, a feeling of uneasiness, and desultory attitude of learning as the problems of psychosocial risk or mental disorders. And also, bibliotherapist need to develop suitable list of books for the typical problems of participant. The study is to present basic data for clinical bibliotherapist and researcher and to indicate the direction of their study in the future.

키워드: 독서치료, 독서자료, 학위논문, 임상적 독서치료, 연구동향

Bibliotherapy, Reading Material, Theses, Clinical Bibliotherapy, Research Trend

*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happyhappygood@hanmail.net)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gyulee@jn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1년 8월 26일 논문심사일자 : 2011년 8월 29일 게재확정일자 : 2011년 9월 9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독서치료는 책을 통해 사람의 정서적, 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치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독서치료는 책을 읽음으로써 개인의 정서, 적응, 발달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사회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리고 실제로 독서를 통해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1964년에 우리나라에 독서치료가 소개된 이후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간헐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독서치료에 관한 연구와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독서치료연구회, 한국독서치료학회 등 각종 독서치료 연구모임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독서치료 관련 인터넷사이트, 클럽, 출판활동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많은 공공도서관에서도 독서치료 관련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제로 시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독서치료 관련 제반 활동의 방향에 대해 염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들은 독서치료란 무엇이며, 우리나라 독서치료 실태는 어떤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치료대상자(이하, 내담자)들의 형태와 특성은 어떠한가?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적재적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효과적인가?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이러한 우려가 사실이라면 독서치료의 방향이나 방법을 제대로 제시해 주어

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초등학생 대상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관련해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현황과 독서치료 과정 이론, 임상·치료적 독서치료 프로그램, 내담자 문제유형, 내담자 문제내용, 독서치료에 활용한 도서 등의 동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독서치료의 이륙기(김정근 2005, 49)를 지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2003년(황금숙 2005, 123)을 임상·치료적 치료의 준비기로 보고, 이때부터 2010년까지 독서치료 프로그램 관련 학위논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초등학생 대상의 임상·치료적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자 할 때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 그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소장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검색하였다. 일차적으로 독서치료, 독서치료 프로그램, 독서클리닉 등의 용어로 검색하였으며, 이 중 초등학생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관련 학위논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석·박사 학위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학문적 성숙의 기반이 되는 대학원 학위과정의 연구를 통해 독서치료 분야의 전문가가 배출되며, 이러한 학위논문이 독서치료 학문발전의 시발점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이 연구자들은 독서치료 분야에서 실제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독서치료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

째, 학위논문은 단행본이나 학술지와 달리 주로 미간행되는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공유의 취약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 연구를 분석해 보는 것은 독서치료 분야의 학문적 성숙에 유용한 기여점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2 선행 연구

우리나라의 독서치료에 관한 연구나 활동은 꾸준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들의 연구 내용은 크게 독서치료 이론, 독서치료 연구 현황(동향), 독서치료 프로그램 적용의 사례연구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중에서 임상·치료적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현황 분석임으로 여기서는 독서치료 현황(동향)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황금숙(2005)은 국내 독서치료 연구동향 분석에서 독서치료 주제의 국내 단행본 23편, 학위논문 60편, 학술잡지기사 70편 등 총 153편을 대상으로 연도별, 학문영역별, 대상자별, 연구유형별 등 다각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독서치료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면서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윤인현(2006)은 2005년까지의 독서치료와 독서요법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여 단행본, 학위논문, 국내 학술잡지 기사의 종합적 서지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들 자료를 분석하여 각 자료에 대한 연구주제, 연구특색 등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김갑선(2007)은 독서치료 관련 학위논문이 최근 몇 년간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음을 인지하고 독서치료 관련 학위논문만을 그 분석 대상으로 하여 연구 경향을 검토하고 향후 독

서치료 연구 심화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 이 연구는 지난 1984년부터 2006년까지 23년 동안의 독서치료 관련 학위논문을 학위, 학문영역,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집단, 연구목적, 연구방법 등의 7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상담심리 전공의 최태산, 최명선 등(2006)은 1988년부터 2005년까지의 국내 독서치료 관련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연구동향을 연도별, 학술지분야별, 연구자 전공별 등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육학 전공의 인형숙(2008)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어린이를 위한 독서치료 연구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연도별, 학문영역별, 대상연령별 등으로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독서치료 관련 현황 연구가 주로 학문영역별, 연구주제별, 대상자별, 연도별 등의 종합적인 현황이나 동향 연구였다면, 이 연구는 독서치료 프로그램 적용 사례연구 논문 중에서 초등학생 대상의 임상·치료적 독서치료의 사례연구로 한정하고, 독서치료 과정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2. 독서치료의 과정 이론

독서치료의 과정은 내담자 스스로 작품(도서)에 반응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치료자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내담자 스스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과정 및 단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적용하는 독서치료의 과정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국내의 독서치료 과정 이론

2.1.1 김정근의 독서치료 과정

김정근은 독서치료 과정을 치유적 책읽기, 치유적 글쓰기, 치유적 말하기 등의 3단계로 각 과정을 방법론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김정근 2004, 58; 한윤옥 2009, 14).

- ① 치유적 책읽기: 선정된 치유서를 한꺼번에 또는 몇 차례로 나누어 집중하며 통독한다.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에 주목한다. 이때 책의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마음으로부터의 공감이 중요하다.
- ② 치유적 글쓰기: 처음 치유서를 손에 들었을 때의 느낌을 적는다. '나'에게 와 닿는 메시지의 강도를 적는다. 읽는 과정에서 '나의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과정을 적는다. 다 읽고 냈을 때 정리되는 생각을 적는다.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적는다. 읽고 나서 떠오르는 얼굴, 읽기를 권하고 싶은 사람, 선물하고 싶은 사람을 적는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종이 위에 솔직하게 적는다.
- ③ 치유적 말하기: 준비해 온 '치유적 글쓰기'를 바탕으로 입을 연다. '나'를 남김없이 한껏 열어 보이며 표현한다. 내키지 않으면 조금만 열어도 된다. 다른 참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다른 참여자들과 서로 마주 보며 토론한다.

2.1.2 김춘경의 독서치료 과정

김춘경은 읽기 전 단계, 읽기 단계, 읽기 후 단

계 등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김춘경 2000, 15).

- ① 읽기 전 단계: 아동의 나이, 성별, 문제의 종류, 독서능력, 독서취향, 아동이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여 적절한 도서를 선정하는 것과 주제에 대한 아동의 생각을 촉진시키고 책에 나온 특징적 상황과 관련된 사건을 이야기해보면서 책에 대한 흥미와 관심, 기대감을 심어주는 작업을 통하여 아동이 책을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한다.
- ② 읽기 단계: 여러 형태로 작품을 제시한다. 치료자가 읽을 수도 있고 아동이 돌아가면서 읽을 수도 있고, 집에서 읽어오고 치료실에서 작업할 수도 있다.
- ③ 읽기 후 단계: 아동이 책을 얼마나 이해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책과 아동 자신의 문제를 관련시켜 다루는 것과 더불어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를 통해 습득한 생각이나 행동을 효율적으로 행하도록 평가하는 단계이다.

2.2 외국의 독서치료 과정 이론

2.2.1 Doll & Doll의 독서치료 과정

Beth Doll & Carol Doll은 독서치료 과정을 임상·치료적 치료의 경우에는 5단계로 구분하여 독서치료 모델을 제안하였다(Doll and Doll 1997, 10).

- ① 준비단계: 치료자가 먼저 신뢰관계 즉 공감대(rapport)를 형성하고 내담자와 함께 그가 지닌 문제가 무엇인지 명료화하고 그 문제의 범위와 성격을 진단한다. 이

- 단계에서 주목표는 내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문제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인데 표준화된 검사척도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읽힐 자료의 선택 단계: 독서치료를 하는데 필요한 책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관심, 독해력 수준에 맞는 양질의 책을 선정하되 앞 단계에서 밝혀진 내담자가 지닌 문제의 성격에 적합한 책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독서치료는 도서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소설, 비소설, 전기, 자서전 등)를 포함한 영화, 슬라이드, 녹음테이프, 녹화 테이프, 시, 잡지, 일기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③ 책을 소개하는 단계: 이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방법으로 책을 소개한다. 이때 책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이나 건강치 않은 감정적 반응을 포착하고 조절한다. 너무 쉬운 책이나 너무 어려운 책은 독서의 동기를 저하시키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책을 좋아하는 참여자의 경우엔 쉽게 독서치료를 적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동기부여 과정이 중요하다.
 - ④ 이해를 돕는 단계: 독서치료의 핵심적인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 내담자는 참여자가 책을 잘 읽도록 도우며, 책과 내담자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치료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독서치료의 세 가지 원리인 동일화, 카타르시스, 통찰 등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 ⑤ 후속 조치와 평가 단계: 위 단계에서 깨

달은 바를 실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격려하는 단계이다. 인터뷰, 그림그리기, 독후감 쓰기, 역할극, 사회조사 등의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며 읽은 내용이 더 내면화 될 수 있도록 돕는다.

2.2.2 Hynes & Hynes-Berry의 독서치료 과정

Hynes & Hynes-Berry는 독서치료 과정을 인식, 고찰, 병치, 자기적용 등의 4단계로 제시하였다(Hynes and Hynes-Berry 1994: 김현희 외 2010, 103).

- ① 인식: 책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아동이 깨닫는 것을 말하며, 내용만을 이해하는 것보다 등장인물과 그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식의 과정에서 동일시가 이루어지며 억압되었던 사고와 느낌을 방출하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
- ② 고찰: 인식단계가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관련된 도서를 살펴보는 활동으로 무엇이 흥미로운지 나와 등장인물의 가치관과 관심을 비교해 보는 것을 의미한다. 고찰 시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얼마나 등의 질문이 수반된다. 인식과 고찰을 통하여 아동은 대상이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은 아동의 처음 반응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 ③ 병치: 고찰에 대한 결과로 생기는 것으로 대상이나 경험에 대한 기존의 생각과 새로운 것을 나란히 놓고 비교·대조함으로써 등장인물의 양면적인 가치나 태도, 감정, 행동에 대해 자신과 대화해 보는 과

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제에 대한 양가감정을 느끼고 이에 대한 인식을 통해 통찰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

- ④ 자기적용: 아동이 책을 통해 인식, 고찰, 병치하였던 생각이나 느낌과 관련하여, 아동은 다른 사람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나 질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2.2.3 Mazza의 독서치료 과정

Mazza는 Wolberg의 단기심리 치료모델에 시 치료 기법을 사용하여 지지단계, 통각단계, 행동단계, 통합단계 등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김현희 외 2010b, 42).

- ① 지지 단계: 신뢰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 단계로 개인의 문제를 드러내게 된다. 이 단계에 중요한 것은 감정의 표현이다.
- ② 통각 단계: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각대상을 이해하는 단계로 문제에 관한 해석과 명료화를 통해 내담자의 통찰을 발전시킨다.
- ③ 행동 단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다. 내담자가 자신의 정체성과 에너지를 확인하고 통제력을 회복하는 시기다.
- ④ 통합 단계: 종결단계로 미래의 상실과 좌절, 성공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치료에서 얻은 것을 견고히 하는 시기다.

2.2.4 Watson의 독서치료 과정

Watson은 독서치료 과정을 문자단계, 추론단계, 평가단계, 창조단계 등의 4단계로 구분하

였다(김현희 외 2010, 102).

- ① 문자단계: 책의 본문에 드러난 명백한 정보에 초점을 두고 치료자가 질문은 하나 토의는 하지 않는다.
- ② 추론 단계: 치료자는 책의 본문에 함축된 명백한 정보에 초점을 두면서 같은 단서가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결론을 도출하도록 질문을 한다.
- ③ 평가 단계: 책 내용과 독자의 생각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질문, 책 내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독자의 지식, 가치관에 기초를 둔 판단에 의해 내담자 나름의 결론이 내려진다.
- ④ 창조 단계: 작가의 사고를 벗어나 책의 내용을 다르게 만들어 보게 하는 질문이 사용되고 독자는 이러한 창조적 질문에 대해 내용을 구성해 본다.

2.3 독서치료 과정 이론 비교분석

앞에서 살펴본 독서치료 과정에 대한 제이론은 크게 둘로 구분하여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독서치료의 전 과정을 치료자와 내담자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하여 책읽기와 독서후 평가까지를 포함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독서치료의 과정을 내담자의 책읽기부터 시작하여 독서후 평가까지를 포함하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 독서치료 과정을 치료자와 내담자가 처음 대면했을 때부터 치료가 끝나기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이론과 독서치료 과정 중 도서를 가지고 독서치료라는 행위를 하는 과정만을 다루는 이론으로 구분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독서치료를 시작할 때, 치료자와 내담

〈표 1〉 독서치료 과정 이론 비교

구분		김정근	김춘경	Doll & Doll	Hynes & Hynes-Berry	Mazza	Watson
도입	1단계		읽기전 단계	준비단계		지지단계	
	2단계			읽힐 자료의 선택단계 책 소개하는 단계			
전개	3단계	치유적책읽기	읽기 단계	이해를 돕는 단계	인식고찰병치	통각단계	문자단계 추론단계
평가	4단계	치유적글쓰기 치유적말하기	읽기후 단계	후속조치와 평가단계	자기적용	행동단계 통합단계	평가단계 창조단계

자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도입단계부터 시작하느냐 아니면 도입단계없이 바로 전개단계부터 시작하느냐의 차이로, 독서치료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학자들의 제이론을 도입, 전개, 평가로 구분하고 4단계로 나누어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을 살펴보면, 도입단계인 1단계는 내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내담자의 문제 성격을 구조화하는 단계이며, 2단계는 읽힐 자료를 선택하고 책을 소개하는 단계이다.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을 선정하고 내담자의 관심을 고조시켜 책을 소개하고 책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을 주지 않고 동기부여를 하는 단계이다. 전개단계인 3단계는 내담자가 책 읽기를 통해 이해하는 단계로 동일화, 카타르시스, 통찰 등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평가단계와 후속조치인 4단계는 내담자가 책을 통해 깨달은 바를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수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단계로, 이를 통해 내담자의 문제행동이 합리적인 행동으로 발전해 가도록 돕는 단계이다.

〈표 1〉을 보면 김정근, Hynes & Hynes-Berry,

Watson 등의 이론은 독서치료 과정에서 치료자와 내담자의 신뢰관계 형성을 다루는 도입 단계를 다루지 않았고, 김춘경, Doll & Doll, Mazza 등의 이론은 치료자와 내담자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선행한 후 본격적인 독서치료의 단계인 전개단계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도입 단계에 필요한 치료자와 내담자의 신뢰관계 형성을 라포(Rapport, 친밀감)라고 하는데, 라포 형성은 상담과정에서 치료를 성공하기 위해 형성하는 것으로 상호 간의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Gambrill 1997). 따라서 독서치료 과정은 치료자와 내담자간의 친밀도를 높이는 신뢰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3. 초등학생 독서치료 프로그램 학위논문 현황

우리나라에서 독서치료 관련 학위논문은 정신의학 분야에서 김태경이 1984년에 '정신과 입원환자에 독서치료를 적용한 연구'부터 시작이었고,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장귀녀가 1985년에 '도서관 봉사로서의 독서요법 적용 가능

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이후로 80년대에 4편, 90년대에 8편의 학위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는 국내 독서치료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황금숙 2005, 123).

이에 따라 1990년대까지를 독서치료의 '준비기'였다면 2000년대를 독서치료의 '이륙기'로 보고, 짧은 '이륙기'가 지나면 그 이후를 독서치료의 '성숙기'로 전망해본다. 그리고 성숙기에 임상적 독서치료의 문제 해결을 기대해본다(김정근 2005, 49). 특히 2003년도에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최근의 독서치료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고 있다(황금숙 2005, 123).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독서치료의 이륙기를 지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2003년을 임상·치료적 치료의 준비기로 보고, 이때부터 2010년까지 독서치료 프로그램 관련 학위논문 현황과 이 중에서 초등학생 대상의 임상·치료적 독서치료 프로그램 관련 논문의 현황을 연도별, 학문영역별, 내담자의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연도별 현황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독서치료 관련 학위 논문은 박사논문이 23편, 석사논문이 351편이

며 총 37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중에서 초등학생 대상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관련 논문이 108편이며 전체 논문 374편의 28.9%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 <표 2>는 독서치료 관련 학위논문과 초등학생 대상 독서치료 관련 학위논문의 연도별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초등학생 대상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관련 학위논문의 발행을 살펴보면 2003년에 4편, 2004년에 9편, 2005년 9편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7년에는 17편, 2008년은 무려 25편으로 급증하고 있다. 2003-2006년 4년 동안 생산된 논문이 32편인데 비해, 2007-2010년 4년 동안 생산된 논문은 76편으로 지난 4년간 생산된 논문의 2배가 넘는 것으로, 해를 거듭 할수록 독서치료에 관한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3.2 학문영역별 현황

이 연구에서 독서치료의 연구 분야를 김갑선(2007)과 황금숙(2005)의 전공분류에 따라 문헌정보학(독서교육, 사서교육 포함), 상담심리학(상담심리, 교육심리, 복지상담, 재활심리, 정신치료 포함), 유·아동학(아동학, 아동복지, 아동상담, 아동가족, 유아교육 포함), 교육학(초등상담교육, 초등특수교육, 평생교육, 학교상담 포

<표 2> 독서치료 관련 국내 학위논문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석사	전체	25	25	40	36	52	67	52	54	351
	초등학생대상	4	9	9	9	16	25	17	17	106
박사	전체	-	-	2	5	4	3	3	6	23
	초등학생대상	-	-	-	1	1	-	-	-	2
계	전체	25	25	42	41	56	70	55	60	374
	초등학생 대상	4	9	9	10	17	25	17	17	108

함), 종교분야, 기타(사회복지, 생활과학 포함)로 구분하였다.

독서치료 주제의 특징 중 하나는 문헌정보학, 심리학, 교육학 등 학제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각 학문 영역별 독서치료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위수여 학과명과 전공분야에 따라 구분하였다. 학문영역별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치료 관련 학위논문의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독서치료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논문을 생산한 학문분야는 상담심리학 39편(36.1%), 교육학

28편(25.9%), 문헌정보학 25편(23.2%), 유·아동학 10편(9.3%), 기타 사회복지와 생활과학이 5편(4.6%), 종교분야 1편(0.9%)의 순서로 나타났다.

위의 학문영역별 학위논문 현황을 다시 연도별로 세분해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2004년까지는 문헌정보학에서의 독서치료 관련 논문이 7편으로 다수를 차지하나 2005년 이후에는 상담심리학,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독서치료 관련 연구가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교육대학원의 초등상담교육이나 학교상담 전공의 대학원생이 독서치료에 대한 관심이

<표 3> 초등학생 대상 독서치료 관련 학위논문의 학문영역별 현황

학문영역별		연구논문 수	계(%)
문헌정보학	문헌정보(문헌정보교육)	10	25(23.2)
	독서교육(독서 지도, 독서학)	6	
	사서교육	9	
상담심리학	심리학	3	39(36.1)
	상담심리(상담심리교육)	29	
	교육심리	4	
	복지상담	1	
	재활심리	1	
	정신치료	1	
유·아동학	아동학	3	10(9.3)
	아동복지	2	
	아동상담	3	
	아동가족	1	
	유아교육	1	
교육학	교육학	3	28(25.9)
	초등상담교육	6	
	초등특수교육	13	
	평생교육	1	
	학교상담	5	
종교분야	기독교상담	1	1(0.9)
기타	사회복지	4	5(4.6)
	생활과학	1	
계			108(100)

〈표 4〉 학문영역에 따른 연도별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문헌정보학	2	5	1	1	3	6	3	4	25(23.2)
상담심리학	1	1	5	5	7	11	3	6	39(36.1)
유·아동학	1	1	1	-	1	3	1	2	10(9.3)
교육학	-	2	1	2	4	4	10	5	28(25.9)
종교분야	-	-	-	-	-	1	-	-	1(0.9)
기타	-	-	1	2	2	-	-	-	5(4.6)
계	4	9	9	10	17	25	17	17	108(100)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심리학과와의 상담심리 전공의 대학원생들이 독서치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서치료가 특정학문의 분야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학문적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내담자의 문제유형별 현황

독서치료 활동의 종류와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 발달·예방적 독서치료와 임상·치료적 독서치료로 구분한다(김현희 2010a 재인용; Leck 1985). 발달·예방적 독서치료 동향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을 목적으로 하고, 임상·치료적 독서치료는 다양한 정신 질환과 행

동장애 등의 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초등학생 내담자의 문제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와 같이 초등학생 대상의 독서치료 관련 논문 108편중에서 문제유형별 독서치료의 동향을 살펴보면 발달·예방적 치료가 61편(56.5%), 임상·치료적 독서치료 47편(43.5%)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임상·치료적 독서치료의 논문 발표는 2003년부터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4년간 33편의 논문이 생산되는데 이는 전체 47편의 논문 중 70.2%에 이르는 수치이다.

한편, 초등학생 대상의 독서치료 문제유형에 따른 학문영역별 현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과 같이 문제유형별 독서치료의 동향

〈표 5〉 초등학생 내담자의 문제유형에 따른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발달·예방 독서치료	석사	-	3	8	6	8	17	8	10	60(55.6)
	박사	-	-	-	1	-	-	-	-	1(0.9)
	계	-	3	8	7	8	17	8	10	61(56.5)
임상·치료 독서치료	석사	4	6	1	3	8	8	9	7	46(42.6)
	박사	-	-	-	-	1	-	-	-	1(0.9)
	계	4	6	1	3	9	8	9	7	47(43.5)
전체	계	4	9	9	10	17	25	17	17	108(100)

〈표 6〉 초등학생 내담자 문제유형에 따른 학문영역별 현황

영역	발달·예방적 독서치료	임상·치료적 독서치료	합계
문헌정보학	7	18	25
상담심리학	32	7	39
유·아동학	5	5	10
교육학	16	12	28
종교분야	1	-	1
기타	-	5	5
계(%)	61(56.5)	47(43.5)	108(100)

을 학문영역별로 살펴보면, 상담심리학분야는 독서치료 관련 학위논문 39편중에서 발달·예방적 독서치료 관련 학위논문이 32편(82.1%)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발달·예방적 독서치료 관련 연구이다. 그리고 교육학분야의 독서치료 관련 학위논문도 전체 28편중에서 발달·예방적 독서치료 관련 학위논문이 16편으로 임상·치료적 독서치료 관련 연구의 12편보다 많다. 이와 같이 상담심리학과 교육학분야의 학위논문은 임상·치료적 독서치료 관련 연구보다는 발달·예방적 독서치료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 이후에는 상담심리학,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독서치료 관련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 영향이며, 이들은 주로 교육대학원의 초등상담교육이나 학교상담 전공의 대학원생으로서 독서치료 관련 대상이 정상적인 발달단계에 있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문헌정보학분야의 독서치료 관련 논문은 전체 25편중에서 임상·치료적 독서치료 관련 논문이 18편으로 발달·예방적 독서치료 관련 논문 7편보다 많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표 4〉와 같이 문헌정보학분야는 예전부터 꾸준히

문제유형에 따른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임상·치료적 독서치료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이를 학위논문으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독서치료 프로그램 비교분석

여기에서는 초등학생 대상의 임상·치료적 독서치료 관련 학위논문 47편을 중심으로 그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임상·치료적 독서치료는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특정 대상자를 정하여, 그들이 가진 특별한 문제에 주안점을 두어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대개의 경우 질적 분석을 하게 된다.

〈표 6〉과 같이 2003년 이후 초등학생 대상의 임상·치료적 독서치료 프로그램 관련 학위논문 47편 중 구하지 못한 논문 5편을 제외한 42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과정에 적용된 이론의 분포를 살펴보면, 이 중에서 독서치료 과정의 도입단계에서 평가단계까지를 모두 적용한 논문을 대상으로 내담자의 문제유형을 살

펴보고자 한다.

4.1 독서치료 과정 이론의 적용

독서치료 과정에 관한 이론은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료자와 내담자간의 라포형성단계의 유무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임상·치료적 독서치료의 경우 내담자와 라포형성이 포함된 도입단계의 적용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를 기준하여 임상·치료적 독서치료 프로그램 관련 논문 42편을 정리해보면 <표 7>과 같다.

임상·치료적 독서치료에 적합한 프로그램은 독서치료 과정에 라포형성을 하는 도입단계가 있는 과정 이론이다. 이 도입단계를 적용해서 실행한 논문은 27편(64.3%)이다. 여기에는 독자적으로 자체 개발(8편(23.8%))하여 운영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치료자가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라포형성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치료자가 임상·치료적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독서치료 과정에 치료자와 내담자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단계를 도입해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독서치료에는 Doll & Doll, Hynes & Hynes-Berry의 이론이 많이(26편(61.8%))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문제유형의 구분없이 적용할 때 Doll &

Doll, Hynes & Hynes-Berry의 이론이 독서치료 과정의 기본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4.2 내담자의 문제유형

독서치료는 내담자들이 갖는 문제의 원인, 문제의 유형, 내담자의 반응 등을 알아보는 것이 독서치료의 방향과 전략을 세우는 데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의 정신건강을 다루는 교육심리학자들과 임상학자들은 어린이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심리·사회적 위기에서 오는 문제, 정신장애로 오는 문제 등 3가지 측면으로 분류하고 있다(Doll and Doll 1997; 김현희 2004, 278).

이 연구는 임상·치료적 독서치료에 관한 것이므로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제외한 심리·사회적 위기에서 오는 문제와 정신장애로 오는 문제를 다룬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특히 독서치료 과정에서 도입단계부터 평가단계를 적용한 27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내담자'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심리적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말한다. 이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한 것이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증세)이며, 학자에 따라서는 이것을 주제라고도 한다(김영애 2006). 이 점을 고려하여 관련 논문 27

<표 7> 임상·치료적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적용된 과정 이론

적용 이론	김춘경	Doll & Doll	Mazza	독자 개발	김정근	Hynes & Hynes-Berry	Watson	계
논문 수	1	15	1	8	1	11	3	42
비율(%)	2.4	35.7	2.4	23.8	2.4	26.2	7.1	100
도입단계유무	○(27편(64.3%))				X(15편(35.7%))			

편을 대상으로 '연구대상 분석틀'의 큰 범주는 대상(사람)으로 하고, 세부적인 대상의 범주는 주제(내용)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4.2.1 심리·사회적 문제유형

심리·사회적 문제유형의 경우는 내담자들이 대체로 빈곤하거나 부모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으며 아동 학대, 알코올 남용, 다문화 가정 등과 같이 사회적 위기에 처해 있다. 내담자의 유형과 문제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8>과 같다.

<표 8>과 같이 내담자 유형과 문제 내용을 살펴보면 논문 27편 중 18편의 논문이 이 유형에 따른 독서치료를 실시하였다. 심리·사회적 문제유형은 결손가정, 그룹 홈, 다문화 가정, 부모이혼, 새터민, 시설 아동, 장애아동 형제, 저

소득층, 조손가정, 피학대 아동, 학습된 무기력 아동, 한 부모 가정 아동 등의 어린이들로서 이들이 독서치료 대상자로 나타났다. 이 문제유형을 치료해가는 집단은 개별치료와 집단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 1인 개인 독서치료 논문은 1편이며, 17편의 논문은 집단 독서치료를 실시하였다.

4.2.2 정신장애 문제유형

정신장애 문제유형의 경우는 내담자들의 내적 감정에 긴장감, 고통 등이 과도하게 갖든 경우 고립, 퇴행, 위축 등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과도한 공격적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것이다. 내담자의 유형과 문제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9>와 같다.

<표 8> 심리·사회적 문제유형의 논문 현황

문제 유형	문제 내용	논문 수	참여인원(명)
결손가정 아동	우울, 불안 감소	1	24
그룹 홈 아동	자아 존중감, 사회성 향상	1	16
다문화 가정 아동	자아 존중감	1	3
부모이혼 아동	사회성 향상	1	6
새터민 아동	사회적 기술	1	7
시설보호 아동	사회적 능력 향상	1	20
양육시설 보호 아동	자아 존중감	1	17
장애아동 형제	형제관계, 형제간 상호작용	1	12
저소득층 아동	자아 존중감	1	21
		1	16
	성격 요인	1	7
	친사회성 개발	1	3
	표현력 및 사회적 기능	1	30
조손가정 아동	자아 존중감	1	8
	공격성 감소	1	1
피학대 아동	사회성 증진	1	2
학습된 무기력 아동	학습된 무기력 극복	1	20
한 부모 가정 아동	자기 효능감, 친구 관계	1	4
	계	18	217

〈표 9〉 정신장애 문제유형의 논문 현황

문제 유형	문제 내용	논문 수	참여인원(명)
ADHD 아동	자아 존중감 결여	1	1
		1	16
	주의 산만, 공격행동	1	3
	사회성 부족	1	2
	충동성, 자기 통제력	1	30
발표불안 아동	학습태도 변화	1	30
우울증 아동	우울증 감소	1	2
정신지체 아동	사회 적응 행동	1	20
	자아개념 형성	1	30
계		9	134

〈표 9〉와 같이 내담자 유형과 문제 내용을 살펴보면 논문 27편 중 9편의 논문이 이 유형에 따른 독서치료를 실시하였다. 정신장애 문제유형은 ADHD, 발표불안, 우울증, 정신지체 등의 문제를 가진 어린이들로서 이를 독서치료 하였다. 이 문제유형의 치료도 개별 치료와 집단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 1인 개인 독서치료 논문은 1편이고 대부분의 독서치료는 집단치료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내담자의 유형이 심리·사회적 문제 유형이든 정신장애 문제유형이든 간에 이들의 치료 문제는 보편적으로 사회성 증진, 자아개념 및 자아 존중감 증진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즉, 문제유형에 대한 중복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복연구 현상은 내담자의 문제유형 진단 시에 사용되는 검사측정도구의 다양성 부족과 문제유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4.3 활용된 자료

독서치료는 치료자의 어떤 행위에 의한 것보

다는 오히려 책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슨 책을 어떤 상황에서 읽도록 안내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이 독서치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치료에서 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김정근은 “사실 독서치료 모임에서 치료사는 책이라고 할 수 있고 독서행위 자체라고 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과정에서 심리적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자극되어 의식 밖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독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내면과 만나 문제와 그 원인을 찾아내게 되고 아픔의 완화와 변화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한운옥 2009, 94).

그러나 일반적인 도서관을 위한 선정도서 목록이나 추천도서목록, 양서목록과 같이 지식을 늘려주고 교양을 높여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중심으로 작성되는 목록과는 달리 독서치료를 위한 책은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목적의 책이므로 책의 내용이 좋고 훌륭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보다 오히려 그 책이 그 사람의 상황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신이 더 필요하다. 그러므로 독서치료

용 도서목록을 만들려면 내담자들과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27편의 논문에서 활용한 도서를 심리·사회적 문제유형과 정신장애 문제유형으로 나누어 그 목록을 정리해 보았다.

4.3.1 심리·사회적 문제유형에 활용된 도서

심리·사회적 문제유형의 내담자에게 활용된 도서의 서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성자. 2006. 『겨자씨의 꿈』. 서울: 현암사.
- 에밀리 멘테즈 아폰테. 2003. 『난 이제 누구랑 살지』. 노은정 역. 서울: 비룡소.
- 맥스 루카도. 2002. 『너는 특별 하단다』. 아기장수의 날개 역. 서울: 고슴도치.
- 어린이도서연구회. 2001. 『미운 돌멩이』. 서울: 오늘.
- 수지 모건스틴. 2000. 『조커 학교가기 싫을 때 쓰는카드』. 김예령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4.3.2 정신장애 문제유형에 활용된 도서

정신장애 문제유형의 내담자에게 활용된 도서의 서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권정생. 1996. 『강아지 똥』. 서울: 길벗어린이.
- 박현진. 2006. 『대화가 필요해』. 서울: 천둥거인.
- 에밀리오 우르베루아가. 1997. 『어둠을 무서워하는 꼬마박쥐』. 최문정 역. 서울: 비룡소.
- 다니엘 포세트. 1997. 『칠판 앞에 나가기 싫어』. 최윤정 역. 서울: 비룡소.

- 마키타 신지. 2006. 『틀려도 괜찮아』. 유문조 역. 서울: 토토북.

- 미셸린느 먼디. 2003. 『화가 나는 건 당연해』. 노은정 역. 서울: 비룡소.

5. 결 론

오늘날에는 독서를 통한 인간성 회복과 상처 받은 사람의 치유가 더욱 필요한 시점에 있다. 독서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서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발행한 독서치료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은 374편이며, 이 중에서 초등학생 대상 독서치료 관련 논문은 108편이고, 초등학생 대상의 임상·치료적 독서치료 관련 논문은 47편이다. 그리고 이 47편 중에서 치료자와 내담자간의 라포형성부터 시작한 독서치료 관련 논문은 27편이다. 이들의 문제유형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 대상의 독서치료 관련 학위논문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발표한 논문은 32편인데 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발표한 논문은 76편으로 해를 거듭 할수록 독서치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정서적, 심리적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이 많아지면서 독서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독서치료는 다양한 학문분야, 상담심리학, 교육학, 문헌정보학, 유·아동학, 사회복지, 생활과학, 의학, 종교 등의 분야에서 연구되

고 있다. 향후에는 다학문적 영역으로 심리학의 제이론, 교육학의 아동이해, 문헌정보학의 자료 제공과 독서 기능 등에 대한 연구가 독서치료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독서치료 과정을 도입, 전개, 평가 등의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제이론 중에서 김춘경, Doll & Doll, Mazza 등의 이론이 3단계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임상·치료적 독서치료의 경우 치료자와 내담자의 신뢰관계가 독서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에도 임상·치료적 독서치료의 경우는 독서치료 과정의 모든 단계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내담자의 유형이 심리·사회적 문제유형이든 정신장애 문제유형이든 간에 이들의 문제내용은 사회성 결여, 자아개념 및 자아 존중감 결여, 우울, 불안, 학습태도 산만 등이다.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은 내담자의 문제유형과 문제내용에 대한 개발과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독서치료에 활용된 도서는 심리·사회적 문제를 가진 어린이에게는 '겨자씨의 꿈'의 4권의 도서가 활용되었고, 정신장애 문제를 가진 어린이에게는 '강아지 똥'의 5권의 도서가 활용되었다. 이는 실제로 독서치료에 활용된 도서의 양적 빈곤을 의미한다. 앞으로 문제유형에 따른 독서치료의 도서 목록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제언을 하자면, 독서치료에 대한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독서치료 프로그램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회적인 프로그램에 그치거나 추후활동이 덧붙여지지 않은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오늘날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갖는 어린이를 위해서 독서교육이나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활용되는 도서의 발행과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주기적으로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갑선. 2007. 독서치료 관련 학위논문의 연구 경향 분석: 1984-2006. 『독서문화연구』, 6: 153-187.
- 김영애. 2006. 『독서치료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근. 2004. 상처받은 마음의 유능한 주치의, 독서. 『사람과 책』, 8: 56-59.
- _____. 2005. 독서치료의 현 단계. 『도서관 문화』, 46(2): 46-49.
- 김춘경. 2000. 문학의 치료적 기능을 이용한 놀이치료: 독서치료를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4(2): 3-27.
- 김현희, 서정숙, 김세희, 김재숙, 강은주, 임영심, 박상희, 강미정, 김소연, 정은미, 전방실, 최경. 2004. 『독서치료』. 서울: 학지사.
- 김현희, 김재숙, 강은주, 나해숙, 양유성, 이영

- 식, 이지영, 정선훈. 2010a. 『상호작용을 통한 독서치료』. 서울: 학지사.
- 김현희, 명창순, 이동희, 이리아, 이승연. 2010b. 『상호작용 독서치료 사례집』. 서울: 학지사.
- 윤인현. 2006. 독서치료에 관한 자료 연구. 『독서문화연구』, 5: 117-139.
- 인형숙. 2008. 『어린이를 위한 독서치료연구의 국내 동향분석: 2001년-2007년도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태산, 최명선, 광민정, 강지희, 이정이. 2006. 국내 독서치료 연구 동향: 독서치료 관련 논문을 중심으로(1988-2005). 『놀이치료연구』, 9(1): 17-31.
- 한윤옥. 2009. 『독서치료를 위한 기본조건: 상황별 독서목록. 독서대학 자료집: 책읽기를 통한 마음의 상처 치유하기』.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황금숙. 2005. 국내 독서치료 연구동향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117-130.
- Doll, Beth and Doll, Carol. 1997. *Bibliotherapy with Young People: Librarian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Together*. Englewood, Colorado: Libraries Unlimited.
- Gambrill, E. 1997. *Social Work Practice: A Critical Thinker's Guid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ynes, A. M. and M. Hynes-Berry, 1994. *Biblio/Poetry Therapy-the Interactive Process: A handbook*. St. Cloud, MN: North Star Press of St. Cloud.
- Lack, C. R. 1985. Can Bibliotherapy Go Public? *Collection Building*. Spring: 27-32. In Doll, Beth and Doll, Carol. 1997. *Bibliotherapy with Young People: Librarian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Together*. Englewood, Colorado: Libraries Unlimited.